

# 해외 시큐리티 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이 창 무\*

## 〈목 차〉

- I. 서 론
- II.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동향
- III. 국내 시큐리티산업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 IV. 결론 및 제언

## 〈요 약〉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이미 많은 부문에서 경찰로 대표되는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큐리티 산업 고유의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기능의 확대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보안, 그리고 수사과 재난관리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해온 많은 부분과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은 크게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역으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시큐리티산업, 산업동향, 미국, 발전방안】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I. 서 론

1950년대 미군부대 군납경비를 시작으로 태동된 국내 시큐리티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20여년 사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왔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또한 2001년부터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까지 담당, 업무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업체 수 역시 1977년 9개 업체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252개 업체로 늘었고, 2005년에는 2,515개로 증가했다. 시큐리티업체 종사자 수는 2005년 12만 명을 넘어, 그 수에 있어서 전·의경을 제외한 경찰관을 넘어서고 있다(경찰청, 2006). 연평균 성장률이 25%를 넘는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고속성장 뒤에 숨을 고르는 조정기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큐리티산업은 단 한 번의 하강이나 조정 국면 없이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시큐리티산업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과연 국내 시큐리티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함께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하듯 최근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세가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여러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시큐리티산업이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시큐리티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 그 중에서도 현재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 추이 및 특징 그리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대응전략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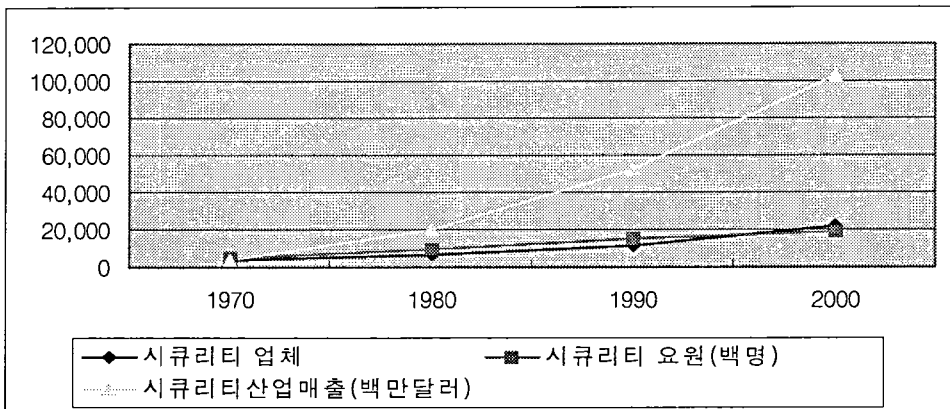
## II.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동향

### 1.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 추이 및 특징

우리나라 시큐리티 산업이 약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시큐리티 산업은 1850년 Allan Pinkerton이 탐정업무를 개시한 이후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미국의 시큐리티 산업은 그동안 침체 국면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왔으

며, 이러한 성장 추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시큐리티 업체의 수는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1970년에서 2000년까지 6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1990년 11,681개 업체에서 2000년에는 21,683개 업체로 2배 가까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큐리티 산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 1970년 35억 달러에 불과하던 시큐리티 산업 전체 매출은 2000년에는 1,030억 달러를 넘어서 30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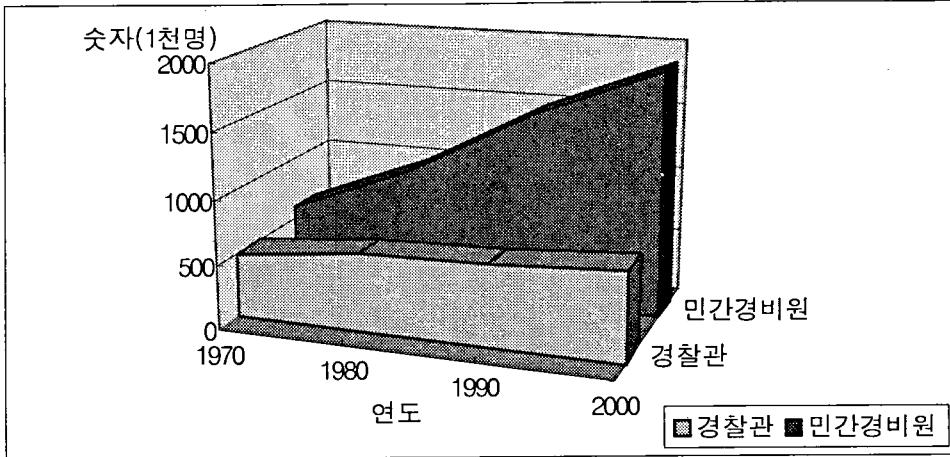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시큐리티 산업 성장 추이



자료: U. S. Census Bureau, 2005; William C. Cuninghame, John J. Strauchs, &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oston: Butterworth-Heinemann.

이와 함께 시큐리티산업은 범죄예방 부문에서 이미 상당부분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큐리티관련 요원의 숫자가 경찰 숫자를 3배 이상 넘어섰고, 앞으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60년대까지 경찰보다 수적으로 열세이던 시큐리티산업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앞지르기 시작해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에는 약 3배 정도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미국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성장 비교



자료: William C. Cuningham, John J. Strauchs, &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oston: Butterworth-Heinemann.

때문에 Bruce Benson(1999)이나 David Friedman(1989) 같은 학자는 심지어 경찰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 상당수 학자들은 아직까지는 시큐리티의 중요성을 예산과 인력부족에 따른 경찰의 치안공백을 메워주는 보완적 역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ayley & Shearing, 1996; Bradford & Simonsen, 1998; Glosby, 1998; Jones & Newburn, 1998; Savas, 2000; Shearing, 1992). 이와 같이 미국 시큐리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경제규모에 걸맞게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분야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우선 기능별로 볼 때 크게 (1) 특정 시설 및 공간의 경비 (2) 조사 및 적발 (3) 출입통제 및 전자감시 (4) 현금 및 귀중품 수송 (5) 군중통제 (6) 경호 (7) 특수견에 의한 순찰 및 탐지 (8) 시큐리티관련 기기 및 제품의 생산과 유통 (9) 지적 재산권 보호 (10) 위험관리(crisis management) 및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업무 (11) 정보 분석 및 처리 (12) 컴퓨터관련 시큐리티 (13) System Integration (SI) (14) Security Consulting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경비, 기계경비, 그리고 특수경비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이창무, 2003).

한편 경비, 경호, 조사 부문이 시큐리티산업 초창기부터 계속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는 사이버보안, 위협분석, SI, 컨설팅 등이 포함되면서 점차 하드웨어적인 보안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의 추세로 옮겨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보안대상에 따른 분류에 의해 (1) 교육시설 보안 (2) 금융시설 보안 (3) 게임 및 도박시설 보안 (4) 정부 산업체 보안 (5) 보건의료시설 보안 (6) 정보시스템 시설 보안 (7) 숙박시설 보안 (8) 생산시설 보안 (9) 도소매 시설 보안 (10) 교통시설 보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사실 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능이 시큐리티산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최근 시큐리티 요원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되면서 시큐리티 요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큐리티 요원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시큐리티업체와 직원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통 1백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미국 시큐리티업체들은 경비원과 요원들에 대한 훈련을 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시큐리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경우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큐리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이나 기업이 범죄피해로 소송을 당해 다시 시큐리티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보인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큐리티업체는 한층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창무, 2006).

예를 들어, *Klein v. 1500 Massachusetts Avenue Apartment Corporation\**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아파트 소유주가 범죄위협에 대해 적당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Philip Aaron Banks, et al. v. Hyatt Corporation and Refco Poydras Hotel Joint Venture\*\** 사건에서 역시 호텔 정문 앞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호텔주변 치안상태에 대해 충분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텔 측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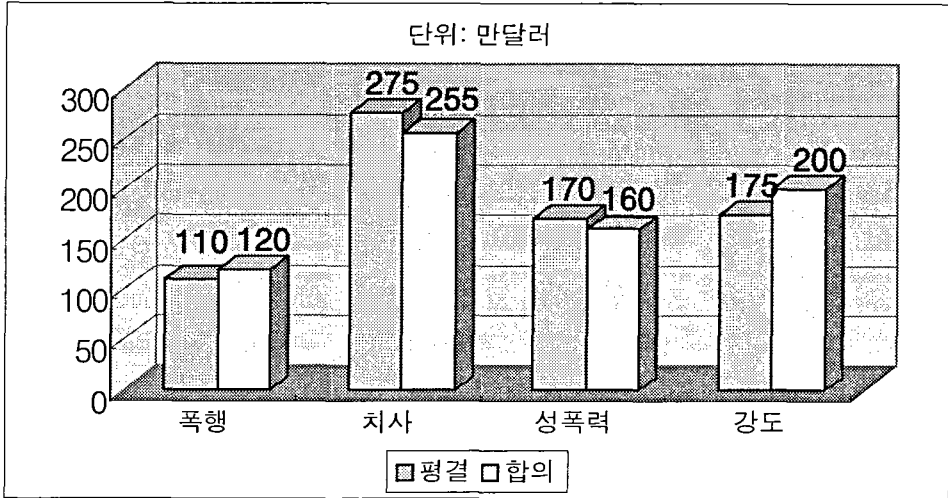
실제로, 미국에서 회사나 매장 등에서 시큐리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내리는 평균 평결액은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회사나 매장에서 벌어진 사망사고의 경우 평균 평결액은 275만 달러이고 합의액도 255만 달러에 이르며, 강도는 평결액이 평균 175만 달러에 합의액은 오히려 이

\* *Klein v. 1500 Massachusetts Avenue Apartment Corporation*, 439 F 2d 477 (D.C. Cir. 1970).

\*\* *Philip Aaron Banks, et al. v. Hyatt Corporation and Refco Poydras Hotel Joint Venture*, 722 F. 2d 214 (1984).

보다 많은 200만 달러이고, 강간 등 성폭력은 평균 평결액이 170만 달러, 폭행도 평균 11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이 이뤄지고 있다.

<그림 3> 미국 소송의 평균 평결 및 합의 액수



교육·훈련과 관련해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 제도라고 할 수 있다. CPP는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우리나라 경비지도사 제도는 국가자격시험이다. 반면 미국의 CPP제도는 미국산업시큐리티협회(ASIS)가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비지도사와 비교할 때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시큐리티업체 대부분이 ASIS에 가입돼 있고, 1955년 ASIS가 설립된 이후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또한 어차피 민간 시큐리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신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치문화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또 다른 차이로는 자격증 취득자의 숫자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제도가 지난 1997년 처음 시행된 이후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2005년말 현재 13,790명에 이르고 있다(경찰청, 2006). 시행 7년 만에 1만여명 이상의 경비지도사가 배출된 것이다. 전체 경비원의 10% 이상이 경비지도사인 셈이다. 시큐리티 산업 종사자가 2백만명이 넘는 미국은 1977년 처음 CPP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약 8,200여명이

CPP 시험을 통과했고, 현재 약 4,500여명이 CPP자격증을 갖고 있다.\* 1997년 미국산업시큐리티협회(ASIS)가 자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CPP 자격증 소지자의 60% 이상이 20년 이상의 시큐리티업체 또는 이에 상응한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체의 95% 이상이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 또한 전체의 50%이상이 대학원수료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CPP시험이 이러한 시큐리티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ASIS는 전문가자격위원회 PCB(Professional Certification Board)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시험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사실은 CEO를 비롯한 고위직책의 상당수가 CPP 자격증을 보유, CPP 자격증 소지자가 단순히 경비원 또는 보안요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중간관리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위 전문직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기업환경이 끊임없는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CPP제도는 시큐리티 관련 요원의 전문화를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CPP 시험의 자격요건은 9년 이상의 시큐리티업체 근무경력과 최소한 3년 이상의 시큐리티관리 경험을 요구한다. 또 대학졸업자의 경우 7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관리책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자는 또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야 한다. 시험형식은 SAT나 GRE와 마찬가지로 선다식 문제로 이뤄져 있으며 점수는 최하 200점부터 최고 800점까지인데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참고로 시험내용을 살펴보면, 시큐리티관리(security management, 38%), 조사(investigations, 15%), 관련법규 및 법률적 측면(legal aspects, 7%), 개인시큐리티(personal security, 9%), 경비·출입통제·경보·감시시스템 등 물리적 시큐리티(physical security, 19%), 중요정보보호(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6%), 긴급사태관리 (emergency management, 6%) 등으로 이뤄져 있다.\*\*

## 2.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최근 동향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인수·합병(M&A)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인수·합병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시너지 효과를 노

\* ASIS, <http://www.asisonline.org/certification/cpp/>

\*\* ASIS, <http://www.asisonline.org/certification/cpp/cpphow.xml>

리는 한편 완전히 독립화한 시큐리티기업군(群)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이 출입통제 부문, 경비부문, 관련기기부문 등 필요에 따라 따로 따로 별도의 시큐리티업체와 접촉할 필요 없이 한 업체에서 시큐리티와 관련된 고객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Pinkertons는 Securitas에 인수되기 전에 이미 California Plant Protection 등 8개 회사를 인수하는 등 인수·합병에 열을 올렸다. 현재 세계 최대 시큐리티 업체인 Securitas는 전 세계 30개국에 모두 20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매출이 60억 달러에 달한다. 또 Fortune 1000 기업 가운데 80% 기업에 대해 시큐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대형화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Securitas는 1999년 Pinkertons를 인수한 뒤에도 2001년 Burns International을 인수하는 등 7개 시큐리티 업체를 더 인수하기도 했다. 또 Ultrak 같은 회사도 최근에만 무려 19개 시큐리티관련 회사를 인수한 바 있다.

합병 인수는 같은 업종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기업인수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시큐리티의 계열화가 이루는 것이다. 이를테면, 화재 및 도난경보장치 판매에 치중하던 Ademco는 컴퓨터회사인 Xetron과 Northern Computers를 인수했다. 두 회사가 갖고 있는 출입통제와 관련된 첨단 기술이 주된 이유였다. Ademco는 곧 CCTV관련 회사를 인수, Security의 계열화를 이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빈용 무장장갑차 제작사와 민간조사업체인 Kroll과 Ogara가 과거 합병했던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보다 세분화(fragmentation)되고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시큐리티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지금까지 시큐리티산업과는 큰 관련이 없던 기업들이 새로이 시큐리티업계에 진출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SONY와 또 다른 전자기기업체인 NICE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Lenel의 등장이다. 결국 이와 같은 외부 업체들의 등장은 시스템 통합을 보다 활발하게 촉진하고, 보다 새로운 기술의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다. 결국,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경우 기업과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관련 분야의 세분화, 다시 말해 시큐리티산업의 macronization과 micronization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 시큐리티산업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다. 때문에 유명한 시큐리티 컨설턴트 중의 한 명인 Ira Somerson(1995)은 “기술의 발전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시큐리티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큐리티전문가들은 미래학에 관심을 가져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상상력이 부족한 시큐리티기업은 급변하는 시큐리티



산업의 환경에서 뒤쳐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시큐리티전문가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시큐리티관련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관련 부문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출입통제 및 감시부문과 관련, 1990년대 CCTV와 관련부품 매출은 3배 이상 늘었고 앞으로 매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0년 출입통제 시스템의 매출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9년 말에는 40억 달러로 100% 증가율을 보였고 매년 10%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 높은 오차율 등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생체인식 기술을 보완한 출입통제 시스템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을 이용한 경비가 한정된 지역, 이를테면 민간교도소 등에서 조만간 선보일 수도 있다. 전자상품감시(EAS) 시스템 또한 보다 정밀화되는 가운데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역시 컴퓨터 시큐리티 부문이다. Firewall과 Intrusion Detection System의 판매는 매년 40-50% 증가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SI(System Integration)부문도 현재 15억 달러 정도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매년 15%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기기 생산업체들도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늘면서 기업들이 고용 사전심사, 마약검사, 심리검사 등을 확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비원을 이용한 경비시스템은 매년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조사관과 Security Consultant의 이용 또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컨설턴트 등을 이용, 맞춤형 시큐리티 프로그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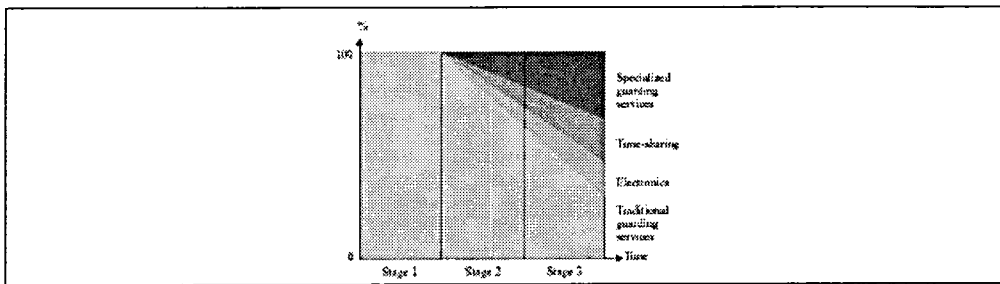
아울러 컴퓨터 산업 및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시큐리티 산업 역시 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부문의 성장이 괄목할만하다. 민간조사 분야에 있어서도 GIS 기술을 활용한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 profiling)이나 Data Mining 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급속히 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Choicepoint사는 Data Mining 기술을 이용한 'Esteem'이라는 직원 신원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Target, Home Depot와 같은 대규모 할인점들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과 RFID기술을 이용한 전자태그 분야도 시큐리티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부문의 시큐리티와 기업의 내부통제(corporate governance)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시큐리티 컨설팅 업무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어차피 횡령, 금융 사기와 같은 기업 내부의 문제는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 및 기업 이미지 실추라는 이중의 위

험(double jeopardy)으로 인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시큐리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시큐리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의 KPMG나 PWC와 같은 회계 회사들이 독자적인 시큐리티 컨설팅 팀을 운영하면서 금융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upont, 2005).

이와 같이 점차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영역들이 개발되면서 시큐리티 산업계의 판도 역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큐리티 업체인 Securitas가 자체 분석한 향후 시큐리티산업의 시장 점유 분포에서도 전통적인 경비업무는 점차 그 점유율이 떨어지고 앞으로는 전문적이고 첨단화한 시큐리티 서비스가 시큐리티산업을 선도할 전망이다.

<그림 4> 시큐리티 산업 부문의 분포 변화 전망



(자료: Securitas AB)

이와 함께 새로운 추세가 국제분쟁으로 인한 시큐리티 수요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을 제외한 다른 서방국가 군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의 경호원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약 2만 여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현지에 진출한 기업 간부, 방문 중인 정부 관리 및 다양한 부류의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류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이 약 8,500명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큐리티 요원들이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경호업체 중의 하나인 Blackwater USA의 경우, 2003년과 2004년 18개월 동안 600 퍼센트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현지 파견 외교관들을 경호하는 한편 현지 주둔 미군을 위한 식료품 하역장을 경비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대부분 경호와 경비 업무이지만, 포로 심문과 같은 특수한 분야까지 담당하고 있다.

### Ⅲ.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특징과 동향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국내 시큐리티산업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대응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잠재력과 원동력을 생각할 때,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 시큐리티 산업과 비교할 때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제시되는 것이다.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특징 및 동향에 비춰볼 때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문제점으로 우선적으로 지목될 수 있는 것이 '통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 시큐리티산업의 동향에서 밝혔듯이, 통합은 시큐리티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같은 업종끼리의 통합은 물론 업종이 다른 회사들 간의 통합 등 기업 통합을 통한 경영혁신 노력이 크게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큐리티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고객만족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시큐리티컨설팅부터 시작해 제품(solution)설치·판매 및 관리에 이르기 까지 원 스톱(one-stop)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 업체가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일반 시큐리티서비스는 물론이고 침입탐지시스템(IDS)같은 사이버보안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시큐리티(total security)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시큐리티업체 따로 사이버보안 업체 따로 접촉할 필요 없이 한 업체에서 시큐리티와 관련된 고객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시큐리티업체와 오프라인 시큐리티업체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분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움직임이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이어져 왔으며 지금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경비업체가 사이버 보안업체를 인수하는가 하면, 반대로 사이버 보안업체가 경비업체나 조사업체 등을 인수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다시 말해 시큐리티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시큐리티산업 역시 업체의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Securitas의 인수합병에서 여실히 보이듯이 시큐리티 업체의 대형화가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500여개가 넘는 국내 시큐리티 업체를 2-3개나 3-4개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미 에스원이나 캡스, KT텔레캅 같은 대규모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시큐리티 산업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업체 숫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군소 영세 업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틈새시장이란 것이 시큐리티 산업의 다양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작은 시장에서 서로 덤핑입찰과 출혈경쟁, 그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경비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몇몇 업체가 시도하고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통합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업체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공동의 CI와 홍보, 관리활동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이다.

둘째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양성의 부족이다. 다양성은 통합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비취질 수 있지만, 통합과 다양화는 결코 반대의 개념이 아니다. 운동에 비유하자면, 통합이 체력을 늘리는 것이라면, 다양화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술의 습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력을 증강하는 것이 곧 기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통합과 다양화는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시큐리티산업은 심각한 편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로 대표되는 경비 서비스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경비시스템 보급률이 턱없이 모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만 역량을 집중하더라도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갈수록 난립하는 경비업체와 아직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큐리티에 대한 필요성(needs) 부족 등을 감안할 때 경비서비스만 마냥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여러 가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 부문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사회가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국민들의 범문화 역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조사부문을 정부기능에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관료주의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심부름센터 등 유사업체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를 고스라이 국민이 떠맡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민간조사 부문이 시큐리티 산업의 최초 형태였고, 지금껏 시큐리티 산업의 핵심 부문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조사부문의 제도화는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영역과 시장의 개척이 이뤄지게 되고 다양성의 확보란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문제점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시큐리티업체가 도산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비리와 태만으로 인한 소송과 배상 때문이다. 보통 수백만 달러의 손해보상이 이뤄진다. 물론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직접적인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땅에 떨어진 회사 이미지는 다시 주어 담기 힘들다. 몇 년 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의 경우, 경비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비하는 건물의 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여자를 강간하고 돈을 강탈했다. 게다가 이 경비원은 에이즈(AIDS)환자로 밝혀졌다. 결국 이 회사는 파산했다. 때문에 미국 시큐리티업체들은 직원들의 신입 교육 및 재교육에 상당한 신경을 쏟고 있으며, 이를 담당할 시큐리티관련 학과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CPP제도를 통해 경비업체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큐리티 요원 및 경비원들의 자질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낮은 임금과 높은 이직률에 덧붙여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의 경우 15시간이던 것이 올해부터 28시간으로 크게 늘었지만, 입교식, 수료식과 평가시험을 보는 4시간까지 교육시간에 포함되었으며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마저 영세업체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며 감소내지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비원 임용시 해당 경비원에 대한 신원조회 또한 미흡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경비원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1년부터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를 시큐리티업체가 맡게 되고, 아울러 총기지급마저 이뤄진 상태이다. 따라서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개항이후 계속 지적되고 있는 공항 보안요원의 전문성 및 자질 문제는 어렵게 얻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업무를 다시 경찰에 돌려줘야 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 훈련 및 자격증 조건의 강화를 통해 시큐리티 경비원과 서비스의 무결점(zero-defect)을 지향하는 것이 사고와 각종 분류와 같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넷째,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시큐리티산업이 지니는 공공성으로 인해서 시큐리티업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큐리티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떠한 규제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시큐리티산업과 경찰 등 관련기관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큐리티업체와 경찰 등 관련기관은 적절한 규제와 바람직한 협력 관계 설정을 위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 많은 학자들이 시큐리티업체 요원들의 낮은 자질과 교육 및 훈련 부족을 시큐리티 산업 발전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한다 (Bayley & Shearing, 1996; Forst & Manning, 1999; George & Button, 1997; Rick Sarre, 1998).

하는 것이다(Cunningham & Taylor, 1985; Rainey, 1997; Savas, 2000). 미국의 APPL과 같은 단계별, 수준별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큐리티 산업에 대한 정부 관련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각종 정보교환과 업무 협조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지 않는 한, 법령 개정과 행정 규제 등을 통한 불이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이해 부족은 결국 시큐리티산업 전체의 리스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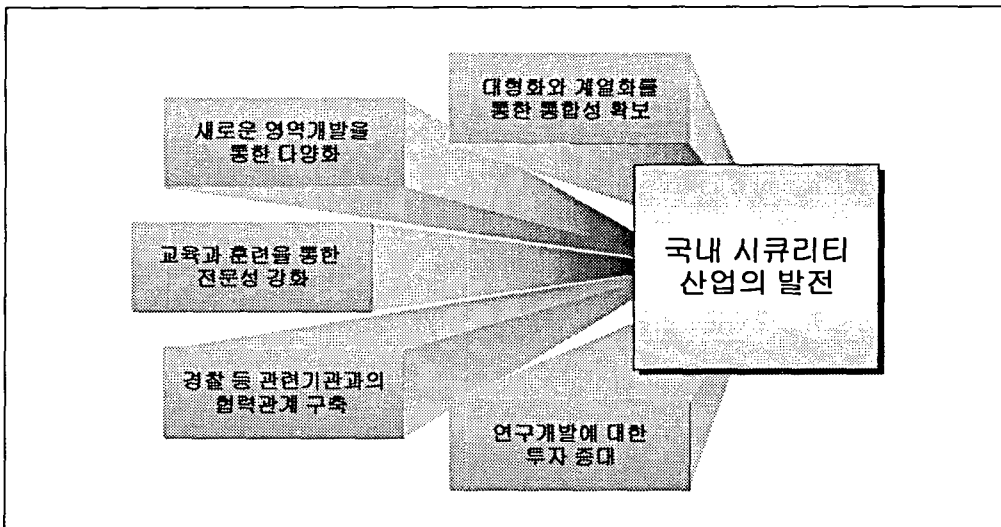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투자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물론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성을 띠고 있는 시큐리티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덤핑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얼룩져있는 시큐리티산업이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큐리티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을 위한 연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시큐리티의 특성화가 이뤄질 수 없고, 결국 덤핑에 의한 “제살 깎아 먹기”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체대로 틈새시장을 노려 소규모 저 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의 특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대규모 업체 역시 새로운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기술연구소 등을 갖추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홈시큐리티 시스템을 비롯해 여러 기술개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것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아직도 미약한 시큐리티시장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 아직 파묻혀 있는 잠재 고객의 필요(Needs)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시장과 고객에 대한 연구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정보와 지식이 곧 자산이 되고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오늘날 산업현실에서 연구개발은 단순한 포장과 비용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투자이자 지식경영의 기본인 셈이다.

이와 관련, 강조되어야 할 점이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으로 바뀌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 시큐리티산업의 흐름이다. 다시 말해,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감시카메라(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인력과 장치에 의한 시큐리티시스템에서 고객의 시큐리티 욕구에 맞는 맞춤형 시큐리티를 설계,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아울러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및 BCP 같은 재난복구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Fay, 2001). 기업이 최적의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시큐리티환경을 설계, 문제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하는 것이 최근의 산업동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단순히 막고, 감시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다. 이런 변화의 밑바탕에는 시큐리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려는 합의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시큐리티산업이야말로 산학협동에 의한 연구개발 노력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필요한 부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림 5>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발전 방안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가 시큐리티관련 자료부족과 공유화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시큐리티와 관련된 여러 기본 자료가 축적돼 있지 못하며, 아울러 회사기밀로 분류될 수 없는 자료조차 공유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산업시큐리티협회(ASIS)가 방대한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회원들에 한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경비협회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 때문에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원 및 필요 인력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시큐리티업체들의 인식전환과 기여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연구개발 노력이 이런 자료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의 축적 및 DB화야말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IV. 결론 및 제언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특성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이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해왔고 지금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계 시큐리티 산업의 흐름과 양상이 미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특성과 동향 파악은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최근 지나친 양적 급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시큐리티 산업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된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정치경제사회 구조와 문화가 다르고 국민의 식과 치안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비판적이고 맹목적인 수용은 항상 경계해야 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성과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과 특징은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하는 국내 시큐리티 산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통합 노력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토털 시큐리티 시스템(Total Security System)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또 시큐리티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위험 분산과 업종의 다각화 노력 역시 필요하다.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큐리티 업체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국제화로 물리적 국경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큐리티산업 발전과 시큐리티요원의 정예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시큐리티산업은 단지 국내 범죄에 대한 예방만이 아니라 테러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예방 기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큐리티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안보환경의 구축이야말로 시큐리티가 갖는 시대적 중요성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도 더욱 시큐리티업체와 경찰·정보통신부·국정원·검찰 등 관련기관의 협력과 상호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 연구개발 노력과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결국 국내 시큐리티산업의 발전과 효과적인 국가 안보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 시큐리티 산업의 변화 흐름을 읽고 이를 토대로 국내 시큐리티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경찰청(2006).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민간경비협회(1998). 『민간경비협회 20년사』. 서울: 다보당.
- 이창무(2003). “미국 민간경비의 성장요인 분석”. 『경호경비연구』 6: 273-289.
- 이창무(2006). “민간경비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22: 349-376.

### 2. 외국문헌

- ASIS.(2004). Security Business Practices Reference: Professional Practices for Security Managers Seeking to Improve Security Within Their Organizations. Alexandria, VA: ASIS International.
- Bayley, David H. and Shearing, Clifford D.(1996). The Future of Policing. Law & Society Review Vol.30, 585-606.
- Benson, Bruce(1998). To Serve and Protect: Privatization and Community in Criminal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roder, James F.(2000). Risk Analysis and the Security Survey.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 Cunningham, William C., John J. Strauchs, & Clifford W. Van Meter(1990). Private Security Trends 1970 to 2000: The Hallcrest Report II.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Dupont, Benoit(2005). Trend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Blurring Boundaries and the Search for Effective Regulation. Presented at the Fifth Annual Colloquium on Crime Prevention.
- Fay, John J.(2001). Contemporary Security Management.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Fischer, Robert J. and Gion Green(2004). Introduction to Security, Boston:

Butterworth-Heinemann.

Forst, Brian and Peter K. Manning(1999). The Privatization of Policing: Two View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eorge, Bruce & Button, M.(1997).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Lessons From Abroad for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Risk,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187-199.

Harowitz, Sherry L.(2000). A World of Possibilities. Security Management. January 2000, 41-47.

Sarre, R.(1998). "Accountability and the private sector: putting account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under the spotlight," Security Journal 10: 97-102.

Savas, E. S.(2000).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New York: Chatham House Publishers.

Somerson, Ira(1995). "The Next Generation," Security Management, January 1995, 27-30.

## ABSTRACT

**The Global Trends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ing on the U. S. Security Industry**

Lee, Chang-Moo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has rapidly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However, such a rapid growth is being criticized for its focus on external results, which has produced a number of problems. The continued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can be only based upon substan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In this asp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global trend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particularly the recent trends of the U. S. security industry which has led the global security industry. This is because the recent trends of the U. S. private security industry would guid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The U. S.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been replacing the rol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the police, from crime prevention to investig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not to mention asset protection and loss prevention. The recent trends of the U. S. security industry appears to be summarized by such characteristics as variety, specialty, and integration, which might account for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In short, the substan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South Korea should be accomplished by strengthening its specialty and integration, and also widening its variety.

**[Key words : private security, security industry, trends, growth, development,  
law enforcement]**